

마리아 스피리도노바가 볼셰비키 크렘린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 끝.

심장중의강철

3

특히 우리가 불법으로 취급되었을 때 그대들은 농민에 대해 무례하고 역겨운 반혁명적 정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대의 경찰! 그대는 경찰과 함께 어린아이들까지 구타하려는 늙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체카! 그대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름으로, 농민의 이름으로라는 말 아래 모든 노동자, 농민 계급의 이익을 부셔버렸습니다. 당신들의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소심한 반발이라도 나오면 그대들은 그런 사람을 강제로 구속하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나와 관련없는 일이라고 하며 삶을 연명할 뿐입니다. 적어도 그대의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비상시기라고 할 지라도 나쁩니다! 우리는 중앙 관료는 물론 지방 볼셰비키 관료의 뻔뻔함도 알고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고 학살하고 고문하고 속이고 갈취하는 심지어 한 번 조사할 때마다 신원미상의 피해자가 나오는! 노동계급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노동계급을 죽이고 농민을 죽이고 선원을 죽입니다! 노동계급의 진정한 적들인 부르주아를 공격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대 레닌이여 그대가 혁명적일 수 있던 마지막 순간은 그대를 암살하려던 이들의 총을 맞고 타락하기전에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는 아름답고 고귀했다던 차르의 유산을 따르려하고 있고 이는 그 저 고통의 울부짖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저 분노와 두려움만 가득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 계엄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가장 처음 숙청을 주장했던 제르진스키[1]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를 사형집행인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비상 계엄령이 끝나고 나면 이를 철폐하겠다고 하지만 우린 너무나 의아하게 이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선원들은 "나는 내 동지를 죽일 수 없다! 술을 마셔도 나를 해고할지라도 나는 내 동지를 죽일 수 없다!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말하며 술김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로이카[2]를 실행할 때 우리 좌파 사회혁명가들은 처형은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쫓겨나 이후 트로이카에서 처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체카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박되고 비무장이며 무력화된 사람들에 대한 야간 처형은 시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입던 옷까지 발가벗겨 가져가고 죽지않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을 생매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반대하며 자기 방어를 위해 그대에게 총을 쏘는 것이 왜 테러입니까!..

러시아 혁명사를 통틀어서 자기방어란 보복과 협박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소수 권력자의 사형 집행인을 막고 나아가서 이를 제거하려는 열망을 담고있습니다. 이는 정의의 가장 첫요소인 억압과 폭력에 대한 항의와 억압받는 노동자 인민의 명예와 존엄을 일깨우기 위한 즉 노동자 인민 마음 속 깊이 자리잡은 양심의 영혼을 일깨우는 요소입니다. 이 짓밟힌 노동자를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볼셰비키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그리고 노동자여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적을 공격하십시오! 우리가 미르바흐와 아이히호른을 죽인 것은 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테러와 때놓을 수 없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는 노동자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라는 강요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에 대한 테러만이 테러를 정당화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비상 계엄령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자유는 어딴습니까? 그대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그대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빈곤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곧 그렇게 울부짖던 비상 계엄령의 손 위에서 그대의 시체를 볼 것입니다. 바로 혁명의 손 말입니다. 그러니 그 더러운 입과 행동으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 계급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혁명은 당신의 독점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혁명의 수호라는 가치 아래 그대와 우익 사회혁명당놈들이 더럽힌 그 사회주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혁명의 깃발을 새로 올릴 것입니다. 150년 전 프랑스 대혁명에서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정치가 테르미도르의 혁명으로 죽은 것 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공포정치가 러시아 혁명을 프랑스 혁명처럼 만들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와 농민들은 "독특한 독재"[3]를 위해 목숨을 받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헌의회를 폐지하고 사회주의의 반역자와 부르주아 계급의 공포정치가 시작된다면 이제 제대로된 항의조차 못한 채 결박당한 프롤레타리아가 행할 수 있는 권력이 됩니까? 프롤레타리아는 대체 어디에 인류애와 혁명을 호소합니까!

그대여 노동자 인민의 적들은 혁명의 승리의 순간에 프롤레타리아 인민들을 갈취하며 뜯어간 것들의 백배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대도 말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자신들의 붉은 피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적기 아래 혁명을 일으켰고 이 혁명에는 혁명의 위대한 도덕적 권위, 인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사상을 위한 투쟁과 투쟁의 불멸함과 신성함이 있습니다.

혁명 그 자체는 일시적 흐름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삶의 가장 빛나는 변화이며 삶의 정화이며 고양이며 삶의 성화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당신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것으로 이 위대하고 신성한 개념을 덮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추측하려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과 농민은 "체카를 해체하라!"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반드시 실현될 수 밖에 없고 대다수 인민의 이익이 요구되고 자본주의적 발전이 계급모순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발전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이기에 이 사회주의적 신앙은 과학을 토대로 두고 있으며 이성적이지만 한 편으론 비합리적이기도 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하나의 믿음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인류의 더 나은 미래, 진실, 모든 형태의 억압과 폭력의 종식, 진정한 인류애와 평등의 실현과 마침내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는 이 믿음의 불꽃이, 인민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불타는 횃불이 노동자 인민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이 성화에 우리는 그 위대한 혁명으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대여 난 당신에게 묻습니다. 대체 당신은 노동자 대중의 믿음으로 뭘 했습니까? 제 3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4]를 기억하십시오! 제헌회의의 해산은 곧노동자 인민이 "하사하신" 위대한 권력이 비참한 죽음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그저 농민과 노동자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대는 지금 노동자 대중을 배신하는! 그들을 도발을 저지른 것 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대한 혐오, 불신, 공포. 그리고 그대는 이를 마치 이단심문관처럼 영혼과 몸을 받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리려고 하자 그대는 이를 반혁명이라 규정하고 싸웁니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노동자 대중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학교, 거주기관의 사회화, 무역의 국유화. 이는 모두 10월 혁명의 장대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중은 반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플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영웅적으로 굶주리고 차갑던 시기를 벗어난 저 백위대와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를 고려한다면 우린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혁명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민들의 단결된 연대는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해방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족주의를 찾는 것은 그들이 반혁명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받던 시절, 차르의 권위가 너무나 확고했던 시절, 그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던 것이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민족이 아닌 노동자 연대가 그런 고통을 빨리 던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린 연대와 자유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탄생을 봤습니다. 노동자들은 굶주림을 견디며 새 빛이 다가와 진리를 구축하길

원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빛은 적색 공포로도 학살의 어두운 면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빛에는 독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료, 대중의 대한 불신, 당파주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중의 대한 사랑 대신 기만과 선동만으로도 안 됩니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는 그대 자신이다.라는 것만이 빛을 만듭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우리와 같아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면서 그대는 우리와 멀어졌습니다. 우리 여전히 그대와 연대하여 농민, 노동자의 혁명을 지속하려 했지만 그대들은 우리를 멀리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을 위해 독일 제국주의자를 암살하고 농민 봉기를 주도했지만 그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곧 인간의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과거에 십자가가 만들었던 그 신앙의 길을 이제 자유와 인간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이 혁명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을 쫓는 것은 틀린게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이 농민, 노동자와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을 막으려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대들이 말하는 "반혁명"이 커지는 것은 그대 당에 대해 인민들이 신뢰를 저버렸고 불신하고 혁명을 배신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죽음만을 요하는 규율에 그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물론 그대는 논리도 증거도 없지만 이 볼셰비키적 규율에 의문을 품는 이들은 없겠지요.

살아있는 혁명의 정신을 죽이는 그대의 행보에 볼셰비키 내에서도 항의가 나올 것이고 이는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혁명이 대중운동가와 결합될 것이고 우익 사회혁명당과 중도파처럼 그대들도 당 내에서 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가의 지나친 통제는 이제 끝날 때가 왔습니다. 10월 혁명은 볼셰비키가 혁명적이었던 순간이었으며 지금 일어날 혁명은 부르주아 독재로 몰락한 볼셰비키에 대한 진정한 소비에트 권력으로의 회귀를 외치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미리 말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우리와 다시 처음부터 혁명으로 돌아갑시다. 진심으로 다시 손을 잡고 진정한 소비에트 권력을 요구했던 그 때로 돌아갑시다. 물론 그대에겐 우리의 허락을 받고 법을 행하는 거 보다 우릴 죽이고 가둔 다음 농민과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볼셰비키 당의 붕괴가 임박해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여 우리 7월 혁명 당시 볼셰비키를 무너뜨리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며 단순 테러리스트로 인식되었지만 우리 자기방어를 위해 투쟁하고 제국주의에 대항해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볼셰비키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럼 내가 왜 그대들이 짜고치는 사법 코미디에 참여해야합니까? 왜 거기에 참여해 내가 유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까? 인민의 양심과 명예를 대표하는 혁명 재판소가 왜 이따구가 되어야합니까?

소비에트 헌법은 제국주의 요원에 대한 테러를 금지했습니다. 허나 그대여 혁명의 의미에 의하면 이런 테러는 허용되어야합니다! 우리의 혁명에 따르면 누군가가 우리의 목을 배려하고 끌어갈려한다면 우리 양처럼 끌려갈게 아니라 내 생명과 자유를, 내 동지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야수처럼 저항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부르주아의 모든 유산을 과대평가하는 현 시대의 혁명적 법원은 중앙 위원회에 대한 노동자 인민의 자발적인 투쟁을 긍정해야 했습니다. 제르진스카가 말하길 "모든 좌파 사회혁명당놈들은 미르바흐의 머리를 쏘기 위해 우리 중앙 위원회 모두의 머릴 쏘 테러리스트 새기들일 뿐이다."

허나 그대여. 그대는 더이상 혁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린 그대들이 만든 혁명 법원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썩먹으려고 고민하든 간에 나는 순순히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체카도 여기서 부셔질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인생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난 혁명 속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혁명을 위해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시련과 죽음이 오더라도 전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난 그저 재밌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여 그대가 날 쫓아내고 싶다면 그랜 날 죽여야만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혁명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혁명의 것입니다! 유대인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듯 국제 노동자는 사회주의 없이는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조롱받고 고통받은 것 처럼 노동자들도 조롱받고 고통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기에 7월 혁명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우리 좌파 사회혁명당.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의 가치아래 묶인 유일한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정당. 농민과 노동자들의당, 노동자 인민이 자유롭게 선거해서 뽑은 소비에트의 당, 모든 나라의 부르주아와 압제자들과 대항하며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의 당, 어떤 부르주아지와도 어떤 압제자와도 화해하지 않고 구질서의 억압기구로서 우리 손을 더럽히지 않는 당, 사회주의와 인터내셔널에 대한 확고하고 강력한 신념을 가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당신이나 구질서의 회귀를 외치는 반동이 이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살고있으며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열망은 마침내 전 인류의 혁명적인 부흥을 위해 필연적으로 이 가치 아래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인간성의 해방을 의미하는 사상입니다.

[1] Фёликс Эдмúндович Дзeржинский. 펠릭스 예드문도비치 체르진스키. 1877~1926. 소련 정치가이자 체카 지도자.

[2] Тройк. 공정한 재판등 없이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의 재량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던 작전을 의미함.

[3]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함.

[4] III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Советов. 전쟁과 평화에 대한 회의(트로츠키가 제안), 토지 사회화 법률 승인, 러시아를 연방적 체제로 만들 것(스탈린이 제안함), 착취당하는 노동자 인민의 권리장전등이 대표적인 안건이었던 1918년 회의.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26447-pismo-m-a-spiridonovoy-tsk-rkp-b-noyabr-1918-g>#cite-ref-1-27-1